수령복을 누리는 인민의 행운

인간이 삶의 깃을 펴고 사는 이 행성은 넓다. 그래서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제나름의 자랑도 많다.

땅이 크고 인구가 많은 자랑, 자원이 풍부하거나 경제가 발전한 자랑, 고대문화를 가진 자랑, 경치가 좋고 관광지로 소문난 자랑…

그러나 그 모든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을 이 땅의 인민은 세상에 대고 웨치고있다. 그것이 바로 그 어떤 자랑과 긍지보다 더 큰 자랑이고 긍지인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사는 자랑과 긍지이다.

령도자복, 그것은 공화국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고있는 복중의 복이니 지금 이 땅 어디서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매혹과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진정 공화국인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고 따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어떤분이신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뛰여난 정치가, 령도자이시기 전에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고 그이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매일 매 시각 받아안으며 사는 공화국인민 누구나가 터치는 감탄이다.

이 나라에서 인민은 령도자의 뜻으로 말하고 령도자는 인민의 뜻으로 정치를 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정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담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 인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인간》, 《우리 어버이》로 다함없는 흠모와 매혹을 담아 호칭한다.

력사에는 덕과 사랑을 중시하고 주장한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정치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목적이 실현된 후에는 덕과 사랑도 사라져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인민은 그런 정치가들을 두고 《정치인이란 강물이 없는 곳에도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허풍을 떠는 족속》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대중을 굴하게 하라. 그로부터 일어나는 불길을 꺼버리라.》는 폭언을 내뱉으며 강압적인 폭압정치를 실시한 독재자, 《지배자는 민중에게 사랑을 받는것보다 두려운 존재처럼 보여야 한다.》고 제창한 통치자도 있었다.

인간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은 력사의 어느 갈피에서나 인민들이 갈구해온것이였지만 그것은 인민이 주인된 사회, 인민사랑을 체현한 령도자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인간애의 소유자이신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감동깊은 이야기가 이 나라 인민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히 새겨져있다.

제국주의강적도 두려움에 떠는 탁월한 령장, 강철의 인간이신 그이께서 눈물이 많으신분, 인정이 많으신 정과 의리의 인간이심을 사무치도록 절감한 그날의 이야기.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일군이, 그처럼 사랑을 다해주시던 일군이 의학적으로는 더는 어쩔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오신 원수님이시였다.

일군의 림종을 지켜주신것만으로도 부족하신듯 그의 장례식을 위한 사진을 손수 골라주시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시는 그날의 령도자의 모습을 뵈오며 온 나라 인민이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신 일군들이 떠나갈 때마다 이처럼 상실의 아픔에 눈물을 걷잡지 못하시였다.

어찌 일군들뿐이였던가.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성대한 열병식의 그밤에는 인민들격정으로 산같이 쌓아오신 심중의 격정, 마음속고백을 터치시며 그이의 안광에서 빛나던 눈물을 모두가 보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는 그이의 눈물젖은 음성을 누구나 들었다.

이런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시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함이라면 설사 모래알이 되여 흩어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며 위민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것이다.

인민들이 행복속에 웃고 떠드는 모습을 그려보시며 삼복철폭염속에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터전을 잡아주시려 험한 령을 넘고넘으시고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모든것에 사소한 불편이나 흠이 있을세라 자신께서 먼저 리용해보시는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

그이께서 헤쳐가신 험한 가시덤불길, 모래먼지바람이 부는 길,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길우에 얼마나 많은 만복의 별천지들이 펼쳐졌던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분이시기에 지난 5월 엄중한 비상방역상황이 조성되였을 때에도 인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중요당회의들을 련속 소집하시였고 깊은 밤 몸소 약국들을 찾으시여 인민들에 대한 약품보장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가정에서 손수 마련하여 보내주신 약을 받고 우리 식구는 너무도 고마워 격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깃든 이 불사약이 나와 우리 가족모두를 살려주었습니다. 총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고장은 평양과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총비서동지께서 보내주신 약이 바로 나에게, 그것도 이렇게 빨리 와닿은것을 보고 총비서동지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가 살고있다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평장중의 제일평장

조선말어휘표현이 다양하지만 우리 인민을 위대하다고밖에는 달리 표현하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는 령도자.

이런 위대한 인간, 이런 령도자를 어찌 인민이 따르고 받들지 않으랴.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신 자애로운 어버이를 모시고 사는 크나큰 행복과 긍지를 노래하면서 천만시련도 웃으며 뚫고헤치는것이다.

제일평장

절대의 국력, 자위의 국가방위력을 시위하며 인류열병사의 새로운 극치를 과시한 열병식은 공화국이 어떤 강국인가를 말해주는 힘있는 언어라고 할수 있었다.

령장의 슬하에는 약졸이 없듯이 경축의 밤 보무당당히 광장을 누비며 행진해간 끌끌하고 미더운 인민군장병들의 모습과 주체무기들의 위용에서 세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천출명장의 슬기와 담력을 다시금 알게 되였다.

든든한 반석우에 세운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런 집에 복도 깃들수 있는것처럼 나라도 힘이 강해야 민족만대의 번영도 이룩할수 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오늘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있다고, 이같은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국방력강화를 위한 목표점령을 더욱 앞당길것을 재촉하고있다고 하시였다. 또한 자위권은 곧 국권수호문제라고 하시며 국권을 수호하는데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조선로동당의 강대강, 정면승부의 투쟁원칙을 재천명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면서 전군이 당중앙의 군건설사상과 군사전략적기도를 받들고 들고일어나 그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만반으로 다짐으로써 위대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령도자》로 다함없는 칭송을 담아 호칭하고있다.

령장을 모시면 작은 나라도 강국이 되고 언제나 승리의 일로만을 걷게 된다.

천하제일명장을 모시여 공화국은 초강대국으로, 공화국인민은 위대한 인민으로 인류의 칭송을 받고있다.

* *

어렵고 힘든 날에 공화국인민은 령도자의 인간적풍모와 장군적위인상을 더 잘 알게 되였고 령도자의 두리에 천겹만겹으로 굳게 뭉쳐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하다고 노래하면서 자기들이 누리는 수령복을 긍지높이 자랑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월

인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하여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주체107(2018)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제약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날 공장에서 만든 여러가지 약품들을 보시고 생산공정들도 일일이 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제약공업부문은 우리가 투쟁의 불을 걸고 밀고나가면 눈부시게 비약할수 있는 부문이라고 하시면서 제약공업부문을 세계적으로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올려세우는것을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회주의보건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꼭 하고싶었던 일

주체105(2016)년 5월 어느날 류경안과종합병원건설현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현대적인 안과종합병원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자신께서 오래전부터 구상해온것이며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시며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것을 보니 정말 마음이 즐겁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였다.

안과종합병원건설이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였기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이 다 끝난 그해 10월 어느날 또다시 현지를 찾으시고 류경안과종합병원은 병원다운 병원, 세계적수준의 병원, 모든것이 마음에 드는 내놓고 자랑할만한 인민의 병원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사소한 빈틈이 없도록 병원운영준비를 더 착실히 하여 운영을 시작하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본사기자

령토의 천재

격난속에서도 더 힘차게 전진하도록 이끄시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국가적인 기본건설대상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고층살림집골조공사와 여러동의 외부시설물건축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내외부미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련포온실농장건설장, 검덕지구 살림집건설장에서도 건설을 중단함이 없이 본격적으로 내밀어 완공의 그날을 앞당기고있다. 또한 농업부문에서는 큰물과 태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있다.

금속, 화학, 기계공업부문들에서도 일별, 순별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전력,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월계획을 초과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도 할수 있는 엄중한 보건위기상황이 조성된 그처럼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지난 5월 엄중한 비상방역상황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에서는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현재의 방역형세가 엄혹하다고 하여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향한 우리의 전진을 멈출수 없으며 계획된 경제사업에서 절대로 놓치는것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해당 단위들에서 국가방역체계를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하는데 맞게 경제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 지휘를 더욱 빈틈없이 하여 당면한 영농사업, 중요공업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생산을 최대한 다그치며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련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중요당회의들에서 최대비상방역상황에서 당및 국가정책집행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를 높이 받들고 공화국인민들은 악성전염병과의 싸움을 벌리는 엄혹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5월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를 사회주의발전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며 오늘의 엄혹하고 간고한 시기를 더 강해지고 더 세련되는 기회로 반전시켜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상반년도 국가정책집행정형을 총화하시고 하반년도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과업과 실천행동방향들을 천명하시였다.

진정 공화국의 활기찬 전진을 계속 떠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인민들은 신심드높이 용기백배하여 올해를 사회주의건설에서 또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승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손 영 진

수필

《급선무》라는 말을 두고

무릇 생활에서는 여느때 평범하게 여기던것에서 뜻깊은 의미를 새겨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내각의 한 일군을 만났을 때였다. 그 일군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각지 인민들의 투쟁열의가 비상히 앙양되여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농사와 소비품생산을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로 정해주시면서 인민들의 생활형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모습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혼신을 불태우는 어버이의 모습그대로였습니다.》

올해 경제과업들중 급선무!

끓어오르는 격정속에 이렇게 외워보느라니 급선무라는 말이 류다른 의미를 안고 뜨겁게 파고들었다.

예로부터 다른 모든 일들에 앞서 급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을 두고 급선무라고 일러왔다.

이 땅에서 울리는 급선무라는 짧은 말속에는 온 나라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무엇을 제일로 중시하시고 어디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계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급선무.

결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된것이 아니였다.

인민의 존엄과 안녕, 인민의 리익과 행복, 미래와 관련되는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추진하실 때마다 그이께서는 급선무라는 표현을 자주 쓰군 하시였다.

몇해전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태풍피해로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태풍피해를 입은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며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요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하여야 할 급선무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였고 어느해인가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서는 물고기가공장건설이 진척되지 못하고있는것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수산사업소의 능력확장공사문제를 사활적인 문제, 급선무적인 문제로 보고 대하도록 일군들을 준절히 타이르시였다.

또한 지난해 9월에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현시기 인민생활보장에서 나서는 급선무는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인민들이 요구하는 필수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고 올해 2월에는 우리 당의 지방건설구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는데서 지방의 건축설계와 시공력량을 꾸리는것이 급선무로 나선다고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 3월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나라의 전쟁대비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은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이라고 말씀하시였고 지난 5월에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찾으시여 현 보건위기를 타개하는데서 주동적으로 지역들을 봉쇄하고 유열자들을 격리조처하며 치료를 책임적으로 하여 전파공간을 차단하는것이 급선무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말씀하시는 시기와 장소, 그 구체적내용은 서로 달라도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 불같은 진정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인민의 존엄과 안녕, 인민의 리익과 행복이였다.

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안정되고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자연의 광란이 휩쓴 검덕을 찾으시여 피해복구를 급선무로 내세우시였고 인민들에게 푸짐한 식탁을 안겨주시려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찾으시여 수산사업소의 능력확장공사문제를 사활적인 문제, 급선무적인 문제로 보고 대하도록 일군들에게 강조하신것이다. 또한 인민들이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인민의 존엄과 영원한 안녕을 위해 농업과 경공업발전, 지방건설과 국방력건설, 방역대전을 급선무, 최중대사로 내세우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밝혀주신 하반년도 투쟁방향과 실행대책들 역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민을 위한것이였다.

인민을 위한 일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는것,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세우시는 급선무의 참뜻이 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곁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고 인민이 겪는 고생을 막아주고 덜어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절세위인의 눈물겨운 위민헌신의 세계가 거기에 다 어리여있다.

세상에 이런분이 또 계시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는 끝났어도 회의장에 뜨겁게 굽이친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에 타오르는 충성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홍 범 식